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불사영생은 이제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많은 과학자들 영생 가능성 찾아

국제비즈니스타임(International Business Times)은 2015년 10월 2일 어느 러시아 과학자가 자신의 몸속에 350만 년 동안 살아 있는 '불멸(immortality)' 박테리아를 주입한 후 2년간 독감도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러시아 과학자 '불멸(immortality)' 박테리아 몸속에 주입

모스크바 주립 대학의 아나톨리 브로치코프(Anatoli Brouchkov)라는 이름의 과학자는 2009년 매몬토바 고라(Mamontova Gora)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바실러스(Bacillus) F라는 박테리아를 자신에게 주입한 후 그는 훨씬 더 오래 일을 하게 되었고, 2년간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박테리아를 발견한 후 과학자들은 식물, 쥐와 인간의 혈액 세포에 실험을 한 결과 그 박테리아가 수명과 번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브로치코프는 자신을 세균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그 박테리아를 몸속에 투입한 후 더 오래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2년 동안 독감에 걸려본 적도 없으며 더 많은 실험을 해봐야 박테리아가 어떻게 노화를 방지하는지 알 수 있다고 러시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학자들은 지금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수백만 년 동안 가혹한 조건에서 이 박테리아가 계속 살아 있었던 것인지 알아내어 그것을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까지 확장시킬 바라고 있다.

{출처 IBTimes, 2015.10.2., Russian scientist injects himself with ancient 'immortality' bacteria, 한나 오스본



VOICE OF ANATOLY BROUCHKOV HEAD OF GEOCRIOLOGY DEPT, MOSCOW STATE UNIVERSITY

아나톨리 브로치코프(Anatoli Brouchkov)는 350만 살 된 바실러스(Bacillus) F라는 박테리아를 자신에게 주입했다. 영생의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서다

(Hannah Osborne)기자

미국 역만장자들 최근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약을 찾아 나서

불로장생은 인간의 오랜 꿈이다. 그 옛날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 이야기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오늘날에 또 다른 진시황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2015년 1월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 밸리의 역만장자들은 최근 잇따라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약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재미교포 펀드 매니저 윤준규 박사는 생명의 수명과 생체 활력을 50%까지 증가시키는 데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으며, 구글과 오라클,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기업을 세운 창업자들이 바이오 기업을 세우거나 의학연구재단에 거금을 지원해 노화 연구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의 발달로 영생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사례 1: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레이 커즈웨일은 2004년 11월 출판한 <환상적 여행: 영원히 오래 살기(Fantastic Voyage: Live Long Enough to Live Forever) 로데일 북스 출판사)라는 책에서 인간 불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했다. 그는 이 책에서 2만~3만개의 유전자로 구성된 인체를 작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비유하고 발병 유전자를 조작해 발병 자체를 막거나 노화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하는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혈구(血球) 크기의 '나노봇(Nanobots)'이란 아주 작은 로봇이 곧 인간에 의해 발명될 것이며 바로 그 수백만 개의 '나노봇'을 혈관에 투입해 심장질환과 암, 당뇨, 간질환 등 사람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젊음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사례 2: 2004년 12월 3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오브리 드 그레이(Aubrey De Grey) 박사는 영국 BBC 방

송과의 회견을 통해 사람이 1,000살까지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상된 세포와 분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SENS-(Strategies for Engineered Negligible Senescence) 프로젝트>와 기존의 의료 기술이 합쳐져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미 각 부분별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쥐를 통한 종합적인 임상 실험은 향후 10년, 그리고 인체 실험은 추가로 10년이 더 소요될 것인데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인류는 노화의 공포에서 벗어나 나이가 들어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 3: 일본 NHK방송은 60세 나이를 20세로 되돌릴 수 있는 기적의 약물을 소개했다.

미국 워싱턴 의대의 이마이 신이치로 교수는 '니코틴아미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NMN)'란 생체물질을 사람으로 치면 60세에 해당하는 생후 22개월 생쥐에 1주일간 투여했다. 그러자 생쥐의 세포가 생후 6개월, 즉 사람으로 치면 20세 나이 상태로 변화했다고 한다. 일본의 제약사들은 이미 이 물질이 사람에도 효능이 있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15. 1. 17)

말게만 느껴지던 인간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뉴스들이다. 영생을 꿈조차 꾸지 못하던 1981년, 혜성처럼 나타나 이 세상에 영생의 조류를 불러일으킨 구세주 조희성 선생의 뜻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15. 2.1 68호 기사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7)

“시간 시간이 온 천하의 마귀를 완성자가 죽이는 것이다”

완전히 나라고 하는 상태를 잊어버린 단계,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단계가 4단계인 것이다. 4단계에 접어들면 육적으로도 고자가 되는 것이다. 정욕이 일어날 정도는 항상 지옥 권에서 허덕이는 자인 것이다.

4단계에서는 마귀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가를 포착할 수 있으며, 이긴자의 영이 수억 천만 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고로 마귀를 잡는 것은 죽 먹기인 것이다. 마귀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즉각 즉각 분별하여

포착하지 못하면 그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완성자는 10단계까지 올라간 자인 고로 낮추고 낮춰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온전한 단계에서 잡았으면 따라 올 자가 없는 것이다. 시간 시간이 온 천하의 마귀를 완성자가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박멸소탕” 한다고 해서 그 목소리로 죽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박멸소탕” 하는 순간에 분신의 주님이 오셔서 죽여 주시는 것이 다.*

구도의 길

배밀이 단계

구세주님께서 전국 승사 및 부인회 장 회의를 주재하실 때의 일이다. 당시 현 해동건물 공사가 한창일 때라 전국적으로 건축현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구세주님께서 각 계단 책임 승사 및 부인회장에게 목표액을 달성하기를 독려하고 계셨다.

그때 부산제단 승사가 “주님, 승사들이 목표액 채우느라 피가 푹푹 썩고 있습니다”라며 목표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염사를 부렸다. 구세주님께서 “피 안 썩어, 왜 피가 썩어?”라며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다.

승리제단 교리 중에 ‘피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썩고,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피가 썩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영생할 마음은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 희생적인 마음, 나라의 의식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마음이며, 죽을 마음은 근심, 걱정, 미움, 화, 시기질투 등과 같이 나라의 의식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앞에서 말한 부산제단 승사는 전국 승사 및 부인회장들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근심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푹푹 썩고 있다고 구세주님께 하소연을 한 것인데 구세주께서 “피 안 썩어, 왜 피가 썩어?”라며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종이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느냐고 물으니 무(無)즉 없다고 대답과 다르게 답변한 것처럼 말이다.

구세주님께서 왜 피가 안 썩느냐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것은 피가 안 썩는다는 뜻이 아닐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 중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마음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시작도 못한 배밀이 단계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배밀이 단계를 벗어났는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본부제단 2월 성적 발표, 4지역 4개월 연속 1등



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2016년 3월 8일 화요일 구역장회의에서는 본부제단

의 2016년 2월 성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4지역이 지난 11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월이 4개월 연속 1등을 차지하였다. 4지역의 1등에는 지역원들의 헌신적인 감사헌금이 큰 영향을 차지하였으며, 5지역이 2등, 3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 1등에는 45구역이 1등을 차지하였는데, 승리신문 전도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38구역이 2등, 6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특히 45구역과 38구역은 지난달과 순위를 달리함으로써 두 구역의 치열한 순위경쟁이 보는 재미를 더하였다.

개인성적에서는 신순이 권사가 1등을 차지하였으며 김인숙 집사와 김정홍 승사가, 12가지 항목의 점수가 각각 더하여졌지만 최종 점수가 동점을 이루어 동률 2등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정수운 승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 하나님의 성업에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

간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시상 후 윤봉수 회장은 “2월 역시 온 정성을 다해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상을 하신 분들의 그 열의는 하나님의 역사에 큰 힘이 되며 단순한 헌금만 많이 해서 등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회의, 구역회의, 심방, 승리신문, 전도 점수 등이 합쳐져서 점수로 환산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야만 등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구역 1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2등: 38구역(구역장: 김정순)
- 3등: 6구역
-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 2등: 김인숙 집사, 김정홍 승사
- 3등: 정수운 승사*

박명하 4지역장, 승사로 임명



박명하 4지역장이 3월 운영위원회에서 승사로 발령되었다. 승사(勝師)는 구세주의 대리로서 마귀를

특전팀 일정 안내

3월 12일 오전 10시 부산제단
3월 19일 오전 10시 마산제단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증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